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 17-9 호
 2017년 5월 12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 2014~2016년 상하이시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수출입 총액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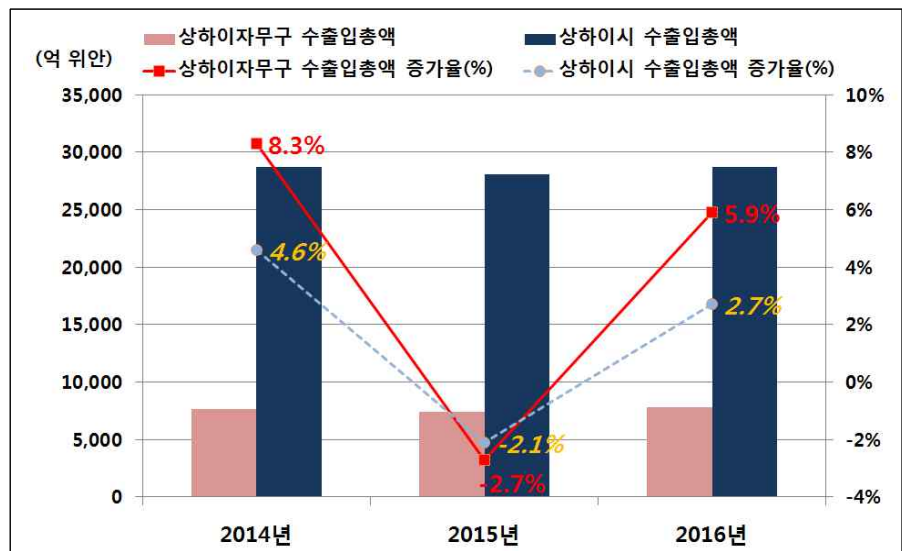
구분	상하이시 수출입	전년대비 증가율	상하이 자무구 수출입	전년대비 증가율
2014	28,668	4.6	7,624	8.3
2015	28,061	-2.1	7,416	-2.7
2016	28,664	2.7	7,836	5.9

자료 : 상하이시통계국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자료 : 상하이시통계국(www.stats-sh.gov.cn), 각년 통계 공보를 바탕으로 KMI 작성

2016년 상하이 자무구 수출입총액 7,836억 위안, 전년대비 5.9% 증가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가 정식 설립되었으며, 2014년 상하이 자무구의 수출입 총액은 7,623억 위안으로 상하이시 전체 수출입 총액의 26.6%를 차지했다. 같은 해 상하이 수출입 총액은 2조 8,66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초로 전국 수출입총액 증가율을 상회한 수치이다. 상하이자무구 설립이 상하이시 수출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5년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상하이시 수출입총액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2조 8,061억 위안을 기록했다. 상하이자무구의 수출입총액도 7,41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했으며, 상하이시 수출입의 26.4%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중국 대외무역의 역성장 속에서도 상하이시 수출입 총액은 2조 8,664억 위안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상하이자무구 수출입총액도 7,83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상하이시 수출입 총액의 27.3%를 차지하였다.

향후 상하이자무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 및 다양한 국가와의 FTA 협정을 활용하여 대외무역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무역편리화 조치로 통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신규 산업에 대한 발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저자 소개

선귀룽(沈桂龙)
상하이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박사 학위 지도 교수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발전 현황 및 향후 개혁방향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로 3년여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중국의 기타지역에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개혁 경험을 축적했다. 이처럼 상하이 자무구의 제도 혁신은 훌륭한 개혁 효과를 이루었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들은 다음 단계의 전면적인 심화개혁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자무구의 3대 대표적 개혁과 그 성과

지난 3년간 상하이 자무구는 제도 혁신 방면에 큰 진전이 있었고, 여러 부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남았다. 상하이 자무구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261개 성공사례 항목 중 국무원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61개, 각 부문(부처)에서 주체적으로 홍보 중인 항목이 모두 53개이다. 이중 투자관리, 무역편리화 및 금융영역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이 3대 영역에서 제시한 대표적 개혁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1. 네거티브리스트를 핵심으로 하는 투자관리 제도의 건립

진입 전 내국민대우 원칙과 ‘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이념에 따라, 상하이 자무구는 2013년 중국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를 공표했다. 이를 기초로 2014년과 2015년의 수정작업을 통해, 현재는 모든 자무구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조치는 이미 122개 조항으로 감소하여 첫 번째 버전보다 68개 조항이 감소하였다. 그에 맞게 서비스업 영역도 한층 더 개방되어 기업의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대외투자도 더욱 편리해졌다. 3년간 상하이 자무구가 외자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진입전 내국민대우는 약 90%의 국민경제산업으로 확대되었고, 자무구 내의 신규등록 기업은 4만개로 과거 20여 년간의 등록 총계를 넘어섰고 ‘활성도’는 80%를 넘는다.

그중 신설 외자기업은 7,300여개로 등록초기의 5%에서 20%까지 상승하여 상하이시 외자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자무구 내에 등록되어 있다. 90%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제(备案) 방식을 통해 설립되었고, 처리시간은 기존의 업무일 기준 8일에서 1일로 감소하였다. 신고 구비자료도 10개에서 3개로 줄었다. 약 10개 부문의 관련업무가 ‘공동 연계업무(多证联办)’를 실현했으며, 자무구를 거친 해외투자항목은 누적 1,450건 이상, 중국측 투자 총액은 490억 달러를 초과했다.

2. 국제표준과 연계된 편리화된 통관제도 기본형성

상하이 자무구는 ‘1선 개방 실시, 2선 안전한 고효율적 관리(推进实施一线放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EX

구분	01-06	05-12
종합지수	806.26	837.74
일본 향로	653.60	664.41
구주 향로	1059.04	1099.21
미서부 향로	682.17	625.80
미동부 향로	860.49	845.46
한국 향로	556.25	572.31

주 : '01-06' 2017년 1월 6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6	05-12
종합지수	992.60	957.28
석탄	996.54	984.19
곡물	770.59	772.99
금속광석	1030.54	865.81
정유	1239.27	1287.61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开, 二线安全高效管住)'의 원칙을 주창하며 세관은 1선의 '선진입, 후통관', 2선의 '그룹 반입반출, 집중신고'를 실현했고, 검역부문은 '선진입, 후검역', '입국 비자면제', '예비검사' 등을 진행했다. 또 국제무역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상하이 출입국 화물과 선박의 신고수속을 단일창구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화물현황 관리·감독제도를 구축하여 각기 다른 상태로 분류된 화물이 같이 물류배송과 가공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외 무역 일체화 발전을 추진했다.

현재, 상하이 자무구의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은 이미 1선 진입화물의 당일 반입을 실현했고, 반입·반출시간도 기타세관 평균과 비교하여 각각 78.5%와 31.7%를 단축하여 평균 물류비용 10% 삭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하이 출입국사무소 95%의 화물신고, 모든 선박 신고는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처리하여 플랫폼 이용자가 5,000개 기업에 이르고, 서비스 기업은 17만개에 이른다. 화물현황 관리감독은 정보화 관리감독과 집약화 운용을 통해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물류창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3년간 상하이 자무구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을 통한 수출입액은 2조 위안으로, 동기간 상하이시 수출입 총액의 26.9%를 차지한다.

3. 더 큰 개방과 효과적인 위험요소 방지의 금융제도의 성과

상하이 자무구는 '장부분리정산'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무역계좌시스템을 설립했다. '분류별로 나누어 관리'하여 자본의 태환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민폐의 자유로운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인민폐의 국제화를 추진했다. 금융서비스 기능을 향상시켜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을 설립, 국제적 수준을 지향하는 교역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금융영역 관리방식을 혁신하여 금융관리와 위험요소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상하이 자무구에 입주한 금융기구는 817개로 전체 시의 53.9%를 차지한다. 모두 51개 금융기구가 장부분리정산시스템을 통해 검수받고 있으며, 누적 자유무역계좌 개설은 6만 5천 개, 자유무역계좌업무와 관련된 국가와 지역은 126개, 3만 2천개의 국내외 기업이 있다. 누적 597개 기업이 인민폐 역외자금 공동관리업무(Cross-border Cash Pooling)를 하고 있으며, 자금공동관리(Cash Pooling) 수지총액은 7,768.1억 위안이다.

2016년 역외 인민폐 결산총액은 이미 1조 1,518억 위안에 달하여 시 전체의 50.99%를 차지했다. 상하이보험교역소, 상하이황금교역소 및 상하이선물교역소가 설립한 국제에너지교역중심, 원유선물 및 국제금융자산교역플랫폼 등이 연이어 설립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신형금융업무모니터링 플랫폼을 건립하여 11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8만 2천 개의 인터넷 금융, 융자담보 등 신형금융기업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2 자무구 개혁추진 중 존재하는 문제들

높은 수준의 국제투자무역규칙 및 인민폐 국제화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하이 자무구 개혁추진 과정 중에는 여전히 일련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상기 서술의 3대 영역의 개혁은 개혁 중의 난관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

1. 투자관리제도와 국제투자규칙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가. 자무구 기본입법

자무구 기본입법은 국제투자의 보편적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무구는 많은 법률문건 중 가장 핵심이며 기본은 <중국(상하이) 자무구 조례>(이하 <조례>로 약칭)이다.

<조례>를 살펴보면, 심화개혁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국제무역투자자유통규칙을 직접적이며 명료하게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 진입전 내국민대우 등 국제경제무역관계 보편적 원칙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투자관리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나.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리스트는 본래 국제투자규칙의 새로운 이념,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설명, 새로운 범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첫째는 외자기업에서 인정하는 표준 및 전문용어 등 국제추세와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자무구에서 적용하는 등록지 표준과 주소지 표준을 적용하는 외자기업의 국제적 추세와 거리가 있어서 외자기업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투자쟁의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 이 밖에도 투자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전문용어에 있어 미국의 2012년 BIT 모델과 일치하지 않아서 투자정의, 간접부과, 자유투자, 공정대우 및 무차별원칙 등과 같은 중요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협상 및 집행 중의 이견을 줄이기 힘들다.

두 번째는 상하이자무구 리스트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2015 버전 <자무구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상 제한조치에 대한 서술방식, 포함이유, 상응규칙 및 실시조치 등이 모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아서 국제적 표준의 투자무역규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크다. 서술의 122개 조항의 특별관리조치는 2013 버전의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하여 대폭 축소되었지만 미국-한국 간 FTA, 미국-우루과이 간 BIT, 미국-르완다 간 BIT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도한 특별관리조치가 존재한다.

2. 무역관리제도개혁에 있어 협력의 곤란

가. 부문 간 협업의 부족

자무구 내의 세관특수관리구와 기타구역간 협업이 부족하다. 상하이 자무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구는 4개 세관특수관리구역과 루자주이 금융구, 진차오 개발구, 창장 첨단기술단지 등 비세관특수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무구의 무역관리혁신조치가 이 4개 세관특수관리구역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세관특수관리구역까지 확장됨에 따라 이들 양자 간 불일치라는 문제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세관, 검역 등 출입국관리부문이 시행하는 무역관리혁신조치는 대개 세관특수관리구역내로 제한되는데, 이는 상하이 자무구 내의 세관특수관리구와 기타 비세관특수관리구 사이의 직접적인 정책차이가 있어 협업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나. 단일창구 내 기타부문 간 협업 부족

다른 부문 간의 개혁협동이 부족하다. 자무구 무역편리화 개혁에 있어서 일부 연결고리가 부족한 부문은 효과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협업 효과를 약화시킨다. 단일창구로 보면 세관, 검역, 해사, 검문 등 출입국관리와 무역관리부문 간의 기능에 있어 협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창구 기능이 축소되어, 가장 포괄적이고 특수해야 할 단일창구의 기초적인 ‘부문화’를 초래한다.

3. 금융개방혁신과 시장과 기업이 바라는 점 사이의 격차 존재

가. 세부 규칙의 부재

기존의 금융혁신은 추가적인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 자무구는 많은 금융혁신심화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에 맞는 세칙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교역플랫폼과 요소시장은 한층 더 개방되고 구체적인 세칙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 자유무역계좌도 한층 더 편리화된 계좌기능, 인터넷은행 계좌이체증가, 수취 및 지불업무의 간략화가 필요하고, 역외금융업무발전에 있어서도 세칙을 필요로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과도한 자금통제

금융개방이 자본도피라는 심각한 상황 때문에 다소 축소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계좌는 자본도피로 인한 엄격한 통제의 영향으로 자금왕래가 다소 불편해졌다. 자본항목 개방은 지속적으로 시행중이었으나 자본통제의 영향으로 다소 지연되어 기업관리에 비교적 큰 위험요소가 되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인민폐 역외자금 공동관리 업무는 그 규모와 편리도에 있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방출을 통제하고 긴축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무역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추세이니 중계무역에 대한 지원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3 자무구의 추후 개혁의 방향과 조치

1. 자무구 추후 개혁의 방향

현재 국무원은 <상하이) 자무구 개혁개방 전면심화의 방안 全面深化(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을 공표했는데 이는 2013년 <중국(상하이) 자무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과 2015년 <중국(상하이) 자무구 개혁개방 방안의 심화 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에 이은 가장 최신의 3.0버전 방안이다. 국무원은 자무구에 대해 일련의 최신 개혁의 목표와 요구에 대해 제시를 해왔었다.

새로운 방안은 2020년까지 상하이 자무구가 술선하여 국제투자와 무역통용 규칙에 접목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무역자유를 실현하고 규칙투명개방, 공평하고 효율적인 감독관리 및 경영환경이 편리한 국제적 수준의 자무구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술선하여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경영환경과 공평하고, 통일된 고효율의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임무로는 개혁시스템 통합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측면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등기제도를 전면 심화하여 ‘증조분리(证照分离: 영업집조와 허가증을 분리)’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국제무역의 ‘단일창구’가 국제선진 수준에 달해 세관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더욱 빠른 업무효과를 추구한다.

국제투자무역규칙은 국제통용규칙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무역편리화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실시하고, 금융개방 혁신을 심화하여 자유무역항구를 설립한다. 이 밖에 정부기능 전환과 협력발전모델 등에 있어서도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 서술했다.

2. 기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조치사항

기존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미국 BIT “네거티브리스트”를 벤치마킹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형식상 기존의 세계적 수준의 투자무역 협상의 네거티브리스트를 참조해야 하며,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는 향후 관련 협상에서 필요한 관련협상 형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형식으로는 미국의 2012년 BIT 버전의 제한조치 첨부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6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부문(보류조항에 직접 관련되는 부문 및 특정 하위부문), 산업분류(보류조항에 직접 관련되는 산업분류 코드), 정부계층(보류조항을 관리하는 정부계층), 관련 책임의무(특히 보류조항과 직접 관련되는 책임조항,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인용 및 참고조치(보류조항 실시과정 중, 관련 상세 법률, 법규와 기타조치)와 함께, 어떠한 작은 관련이 있는 사항 모두 포함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식이 국제표준의 형식에 부합하며 외자기업도 납득하기 쉬워서 보류산업 및 특별관리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조치목록이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관련 전문용어는 미국 BIT 버전과 접목의 필요가 있다. 이 방면에서 한미자유무역구(KORUS)의 네거티브리스트가 참고할 만하다.

둘째,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계기로 협력혁신을 도모한다. 상하이에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공사를 장려하여 각자 기업관련의 기능플랫폼 및 부대적 허가 비준사항을 단일창구 기능플랫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중앙직권 기능이 포함된 단일창구시스템의 효과적 경로를 구축하여, 기능플랫폼과 출입국관리감독집행과 통관과정이 집약화된 포괄적 단일창구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로써 단일창구의 병목현상을 해결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제고한다.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 정부가 지니고 있는 강력한 행정자원과 협력능력의 발휘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단일창구 제도혁신의 최대 수혜자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응당 그 주요 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개방 확대에 있어 금융개방세칙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자본유입측의 자본항목 태환의 진행을 가속화하여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¹⁾의 해외투자를 완화하고, 적격국내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시행하여 ‘금융개혁 40조’의 개방세칙을 준수한다. 자유무역계좌의 역외교역기능을 확대하고, 자금유통 속도를 제고하며, 외자은행의 상하이기업 적립금 대출참여를 허가하는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1) 상하이 자무구가 출범할 때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한 이 제도(QDLP,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중국 내에서 자금을 모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는 외국 헤지펀드가 합법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첫 발판을 놓아준 것으로 평가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칼럼 원문

上海自贸试验区发展现状及下一步改革方向

上海自贸试验区作为全国第一个予以设立的自贸试验区，三年多的改革创新，形成了向全国其他地区推广和复制的经验，为国家更好、更大程度开放提供了压力测试，形成了很多可供参考的改革方案。上海自贸试验区的制度创新取得了良好的改革效果，但也遇到了一些瓶颈问题，需要在下一步全面深化改革中攻坚突破。

一、自贸试验区三大标志性改革及其成果

3年来，上海自贸试验区制度创新取得很大进展，形成不少可复制、可推广的经验。上海自贸试验区已向区外推广261项成功经验中，由国务院集中推广的有61项，各部门自主推广的共53项。其中，比较突出的复制和推广经验集中在投资管理、贸易便利化和金融领域。这三大领域推出的三大标志性改革，取得引人注目的成果。

(一) 以负面清单为核心的投资管理制度得以建立

按照准入前国民待遇原则和“法无禁止即可为”的理念，上海自贸试验区2013年推出全国首张版负面清单，在此基础上经2014年和2015年修订，目前所有自贸试验区负面清单管理措施已减少到122条，比第一版少了68条。相应地，服务业领域进一步开放，企业注册登记大为简化，对外投资进一步便利。3年来，上海自贸试验区对外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已拓展到90%左右的国民经济行业，区内新注册企业4万家，超过挂牌前20多年总和，活跃度超过80%。其中，新设外资企业7300多家，占比从挂牌初期的5%上升到20%，上海市近一半外资企业落户区内。超过90%的外商投资企业通过备案方式设立，办理时间由原来8个工作日减少到1个工作日，申报材料由10份减少到3份。近10个部门的相关业务实现了“多证联办”。经自贸试验区投资境外的项目，累计超过1450个，中方投资总额超过490亿美元。

(二) 接轨国际标准的便利化通关制度基本形成

上海自贸试验区“推进实施一线放开、二线安全高效管住”，海关实现一线“先进区、后报关”、二线“批次进出、集中申报”，检验检疫部门推行“先进区、后报检”、“入境免签”、“预检核销”。国际贸易“单一窗口”得以建立，实现所有上海口岸货物和船舶申报手续企业普遍通过单一窗口办理。建立货物分类状态监管制度，方便对各类状态货物统一开展物流配送和加工贸易，推动内外贸一体化发展。目前，上海自贸试验区的海关特殊监管区域已实现一线进境货物当天入区，进出境时间较全关区平均水平分别缩短78.5%和31.7%，物流成本平均削减约10%。上海口岸95%的货物申报、全部船舶申报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办理，平台用户近5000家，服务企业17万家。货物分类状态监管，通过信息化监管和集约化运作，企业可降低一半左右的物流仓储成本。3年来，上海自贸试验区海关特殊监管区域进出口值2万亿元，占同期上海市进出口总值26.9%。

(三) 更为开放和有效防范风险的金融制度取得突破

建立分帐核算体系，创设自由贸易账户系统，实施“分类别、有管理”的资本项目可兑换，扩大人民币跨境使用，推进人民币国际化。提升金融服务功能，设立外资银行和中外合资银行，建立面向国际的交易平台。积极创新金融领域管理方式，构建金融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监管和风险防范机制。目前，上海自贸试验区入驻持牌金融机构817家，占全市的53.9%。共有51家金融机构通过分账核算系统验收，累计开立自由贸易账户6.5个，自由贸易账户业务涉及126个国家和地区、3.2万家境内外企业。累计597家企业发生跨境双向人民币资金池业务，资金池收支总额7768.1亿元。2016年，跨境人民币结算总额已达11518亿元，占全市50.99%。上海保险交易所、上海黄金交易所、上海期货交易所设立的国际能源交易中心、原油期货以及国际金融资产交易平台等纷纷设立。与此同时，建立相应的新型金融业态监测平台，对11大类、8.2万家互联网金融、融资担保等新型金融企业实施动态预警监测。

二、自贸试验区改革推进中存在的问题

从对标国际高标准投资贸易规则以及人民币国际化的目标来看，上海自贸试验区改革推进过程中还存在一些问题，特别是上述三大领域的改革，还需要解决一些改革中的瓶颈问题。

(一) 投资管理制度与国际高标准投资规则存在落差

1、自贸试验区基本立法未能更直接、更清晰地体现国际投资普遍原则。自贸试验区众多法律文件中，最为核心和基本的就是《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条例》（以下简称《条例》）。纵观全部《条例》，虽强调其深化改革、适度创新的要求，但对于国际贸易投资通行规则没有直接明了的体现，尚未以开宗明义、直接统领的方式引用或体现准入前国民待遇等国际经济贸易关系普遍原则，这也就削弱了投资管理制度进一步与高标准投资贸易规则的紧密接轨。

2、负面清单文本未全面接入国际投资规则新理念、新标准、新表述、新范畴。一是外商认定标准及话语系统与国际趋势不符。外商认定标准方面，自贸试验区所适用的注册地标准，也与适用住所地标准的外商认定国际趋势相背离，实践中可能会导致外资监管的困难与发生投资争议的潜在风险。此外，在涉及投资者的权利义务的关键术语上与美国2012年BIT范本不一致，对诸如投资定义、间接征收、自由投资转移、公平与公正待遇、非歧视原则等重要概念未能作出尽可能清晰的界定，从而减少谈判及执行中的歧义。二是上海自贸试验区负面清单中的不符措施内容繁杂。2015版《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不符措施的表述方式、列入理由、相应规则、实施措施等都未能清晰透明的交代，相比于国际高标准投资贸易规则模糊度较高。列出的122项特别管理措施，尽管已比2013版负面清单大大缩短，但是相对于美国—韩国FTA、美国—乌拉圭BIT、美国—卢旺达BIT等，仍然存在过多特别管理措施。

(二) 贸易监管制度改革存在协同创新瓶颈

1、自贸试验区内海关特殊监管区和其他区域间协同不够。上海自贸试验区由4个海关特殊监管区域和陆家嘴金融片区、金桥开发片区、张江高科技片区几个非海关特殊区域组成。自贸试验区的贸易监管创新措施在这4个海关特殊监管区域间并未取得完全统一，随着非海关特殊监管区域的加入，又出现两者之间的不统一。海关、检验检疫等口岸管理部门推出的贸易监管创新措施一般限定在海关特殊监管区域内，这直接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致上海自贸试验区内海关特殊监管区与其他非海关特殊监管区之间出现政策落差，产生区域协同的难题。

2、不同部门之间的改革协同不够。自贸试验区贸易便利化改革，在一些环节缺乏部门间有效配合或衔接，未能形成无缝、全程的良性运转，得改革创新出现“孤岛效应”和“碎片化现象”，从而降低了改革创新的整体效应。就单一窗口来说，海关、检验检疫、海事、边检等口岸和贸易监管部门之间的职能难以协同，导致单一窗口功能建设碎片化，最突出的表现便是单一窗口基础的“部门化”。

(三) 金融开放创新与市场和企业期望存在落差

1、已出台的金融创新需要配套细则出台。尽管自贸试验区出台了很多深化金融改革的方案，但仍然需要配套细则才能操作和执行。比如，金融资产交易平台和要素市场有待进一步开放和具体细则的出台；自由贸易账户要进一步便利化账户功能，增加网银转账，简化收付款业务；离岸金融业务发展需要更好的细则予以说明；等等。

2、金融开放在资本外逃严重情况下有收缩趋势。自由贸易账户原有功能发挥受资本外逃严控影响，资金往来不够便利。资本项目开放一直未能落地，受资本控制影响，更加延缓，对企业管理产生较大风险。原有运营的人民币跨境资金池业务，其额度和便利受到较大冲击。外管局政策对于外汇指标的发放趋严，外汇管制收紧，不少贸易公司都感觉难以为继，更别说对转口贸易的支持。

三、自贸试验区下一步改革的方向和措施

(一) 自贸试验区下一步改革的方向

目前，国务院已出台《全面深化（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这是继2013年《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和2015年《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最新的3.0版方案。它对自贸试验区提出了一系列最新改革的目标和要求。

新方案要求到2020年，上海自贸试验区应率先建立同国际投资和贸易通行规则相衔接的制度体系，要成为投资贸易自由、规则开放透明、监管公平高效、营商环境便利的国际高标准自由贸易园区，率先形成法治化、国际化、便利化的营商环境和公平、统一、高效的市场环境。在具体任务上，要求加强改革系统集成，市场准入方面要更加开放透明，商事登记制度要全面深化，“证照分离”实施更为全面，国际贸易“单一窗口”具有国际先进水平，海关监管更为安全高效便捷。国际投资贸易规则要加强与国际通行规则接轨，进一步放宽投资准入，实施贸易便利化新规则，进一步深化金融开放创新，设立自由贸易港区。此外，对政府职能转变和合作发展模式等也提出了任务要求。

(二) 针对现存问题应着力推出的几个措施

1、“高仿”国际最高标准的美国BIT“负面清单”。负面清单在形式上要对标现有国际高标准投资贸易谈判的负面清单，为我国正在进行的及未来的相关谈判做好形式准备。具体形式可参照美国2012年BIT范本的不符措施附件形式，包括六大核心要素：相关部门（指保留条款所针对的部门及特定子部门）、行业分类（指保留条款所针对的行业分类代码）、政府层级（指对保留条款进行维护的政府级别）、所涉义务（特指保留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条款所针对的负责条款，如国民待遇、最惠国待遇等）、引用的措施（指保留条款实施过程中，对其要素进行详细描述的法律、法规和其他措施）以及任何相关过渡安排。这样符合国际标准的形式表达，既易于外商理解，又可避免保留行业及特别管理措施目录过于细长。关键术语上要与美国 BIT 范本对接。在这方面，韩美自贸区（KORUS）的负面清单可以提供一定的借鉴。

2、以国际贸易单一窗口为抓手推进协同创新。尝试以政府购买服务的方式，鼓励中央驻沪参与部门以及有关特定公司将各自面向企业的功能平台以及附带的许可审批事项纳入单一窗口功能平台，逐步探索出一条将中央事权功能纳入单一窗口系统的有效路径，促进功能平台与口岸监管执法与通关流程的集约优化，从顶层设计层面有所作为地破解单一窗口功能建设碎片化的瓶颈，为最终彻底解决问题争取时间与时机。上海市地方政府应当在其中承担起主导责任，不仅仅是因为其具有强大的行政资源与协调能力，还在于其是国际贸易单一窗口制度创新的最大受益者

3、在扩大金融开放中尽快出台金融开放细则。进一步加快资金流入侧的资本项目可兑换的进程，放宽合格境内有限合伙人（QDLP）境外投资，试点合格境内个人投资者境外投资，抓紧出台落实“金改40”条的开放细则。扩大自由贸易账户的跨境交易功能，提高资金流通速度，尽快出台允许外资银行参与上海公积金组合贷款的详细方案。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 뚜렷한 성과, 향후 20개 연선국가와 FTA 추진 계획
- 닝보·저우산항 총체 계획 발표
- 상하이, 5년 이내 경제·금융·항운·무역 중심지로 건설 계획
- 국가해양국과 수리부(水利部) MOU 체결

해운 · 항만 · 물류

- 코스코 퍼시픽, 잉커우 컨테이너부두와 잉커우 신세기부두 통합
- 르자오항(日照港), 4개 선석 건설로 북방 최대의 원유집산지 구축
- 충칭 귀위안항(果园港) 복합운송 감독센터 설립 예정, 물류허브 구축
- 광둥 난사(南沙)자무구, 국제선박등록센터 정식 설립
- 2017년 1분기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물동량 563만 TEU, 전 세계 3위 기록
- 텐진항 유라시아 통로 활성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 COSCO SHIP HOLD, 17.79억 달러로 컨테이너선 14척 인수
- 교통운수부 녹색항운 발전을 추진, 여러 조치를 통해 창장 생태 회랑 구축

해양 · 수산

- <광시(广西) 해양경제 지속가능 발전 '13·5' 계획> 발표
- 류펑(刘峰) 대양협회 판공실 주임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에 대한 해석
- 홍콩~주하이(珠海)~마카오 대교, 해저터널 최종 연결 완료
- 역사상 가장 긴 휴어기의 영향으로 칭다오 수산물 가격 증가
- 2017년 저우산 수산물 무역 빠른 성장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 뚜렷한 성과, 향후 20개 연선국가와 FTA 추진 계획

5월 10일, 국무원 언론부서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첸커밍(钱克明) 상무부 부장장의 소개에 따르면, '일대일로' 전략 제기 이후에 중국은 원활한 무역 추진과 경제·무역 발전 심화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 분야에서 2014~2016년 동안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무역 총액은 약 20조 위안을 달성했으며, 그 증가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투자협력 분야에서 2014~2016년 중국기업의 연선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5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또한, 연선국가와 신규 체결한 해외 도급공사 계약액은 3,049억 달러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 건설에 있어서 중국은 20개의 연선국가와 56개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투자액은 185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를 통해 해당 연선국가에 11억 달러 이상의 세수 및 18만 개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 싱가포르 및 파키스탄 등 연선국가·지역들과 FTA를 체결했다.

첸커밍 부장장의 소개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 중국은 20개 연선국가와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²⁾ 추진, '중국-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중국-몰디브', '중국-스리랑카' 및 '중국-이스라엘'간의 FTA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네팔, 방글라 및 몰도바 등의 국가와 함께 FTA 관련 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중국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간에는 이미 FTA가 체결돼 있고, 현재 업그레이드된 협정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7. 5. 11.>

2 Ningbo·저우산항 총체 계획 발표

Ningbo·저우산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화물 처리 물동량이 9억 톤을 돌파한 항만으로 향후 발전 계획이 각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교통운수부, 저장성 정부는 「Ningbo·저우산 총체계획(2014-2030년)(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본격적으로 비준했으며, 항만기능 포지션, 항만 발전 구도, 항만의 수역·육지구역 배치 등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Ningbo·저우산항의 2020년과 2030년 물동량은 각각 11억 7천만 톤과 14억 4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Ningbo·저우산항은 자원의 통합 및 융합을 촉진하고, 강·해(River&Sea) 복합운송서비스센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큰(大)항만'에서 '강한(强)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이다. Ningbo·저우산항은 '통일적인 계획 및 원·근거리의 조합(远近结合), 심수항 활용, 합리적 개발 및 효과적인 보호'의 원칙에 따라 해안선 550km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는 Ningbo시와 저우산시 자연 해안선의 11%를 차지한다.

「계획」에 의하며, Ningbo·저우산항은 총체적으로 '1항, 4핵심, 14구역(一港, 四核, 十九区)'의 공간 구도를 수립했으며, 항만공간의 합리적인 확대를 통해 항만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항만은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효과를 발휘하여 물류, 무역 서비스 등 기능을 확대하고, 우대 정책을 통해 메이산(梅山)보세항구와 저우산항 중

2)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의 16개국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합보세항구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7. 4. 5.>

3 코스코 퍼시픽, 잉커우 컨테이너부두와 신세기 부두 통합

코스코 퍼시픽과 잉커우항무그룹은 최근 쌍방이 공동으로 경영·관리하는 잉커우컨테이너부두 유한공사와 신세기(新世纪)컨테이너부두유한공사의 통합을 선포했다. 이로써 잉커우 컨테이너, 잉커우 신세기부두 일체화 경영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야오핑(姚平) 잉커우항 그룹 부총경리와 증샤오민(曾孝民) 코스코 퍼시픽 부총경리는 양측을 대표하여 “두 부두공사 통합은 새로운 경제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현명한 선택이며 기업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오핑 부총경리에 따르면, 코스코 퍼시픽은 잉커우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잉커우항 컨테이너 사업이 무에서 유로, 소에서 대로 발전하고, 현재와 같은 내수 컨테이너 주요 허브항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코스코 퍼시픽의 지지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야오핑 부총경리는 새로운 회사의 지도자 그룹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업무혁신, 기존 보유자원의 충분한 이용, 원가 절감, 서비스 향상, 일체화 실현 등을 이루어 잉커우항과 코스코 퍼시픽이 각자의 우수한 자원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쌍방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증샤오민 코스코 퍼시픽 부총경리 역시 잉커우항이 양사의 통합 관련하여 여러 방면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회사가 협력하여 새로운 업적을 쌓고, 공영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료 : 中国航贸网, 2017. 5. 8.>

4 르자오항(日照港), 4개 선석 건설로 북방 최대의 원유집산지 구축

중대공정건설 시찰단이 최근 르자오항을 방문했다. 이에 따르면 르자오항은 4개 대형 원유정박선석 건설을 기획 중이며 향후 북방 최대의 원유 집산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르자오항 1기 30만 톤급 2개의 원유부두는 이미 운영에 투입되었고, 2기 공정 즉 제3의 30만 톤급 원유부두는 건설 중에 있다. 이 공정 건설은 30만 톤급 원유 정박지(수리공사 45만 톤급 유조선 정박기준 설계) 및 관련설비의 건설이다. 연간 통과능력 1,750만 톤, 사업 총 투자액 11.73억 위안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며, 12월말 운영투입 조건 검수를 마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르자오항 원유하역능력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며, 배후지의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수요를 만족시켜 항만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르자오항이 북방 최대의 원유집산지로 나가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부두건설과 동시에 르자오항은 후방과 관련된 설비로 600만 m³의 원유관 구역을 갖추게 되고, 린강(临港) 상용저장탱크 규모는 2,020만m³에 이를 것이다. 르자오항은 일류의 자동화 하역설비와 고효율 작업효과, 강한 석유제품 보관 환적능력, 전방향만 후방공장의 운송작업 모델, 석유화학산업원구 발전 등 기초가 견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월한 위치, 광활한 배후지, 우수한 해안자원과 집산 시스템은 르자오항이 린강석유화학산업의 큰 발전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산동성의 원유가공량은 7,50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원유 정제산업의 발전에 따라, 르자오항은 르자오에서 징보(京博)까지의 원유관 건설을 서둘러, 서비스 범위를 루난(鲁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南), 루중(鲁中) 및 루베이(鲁北) 등 지역의 정제기업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료 : 大众网, 2017. 5. 2.>

5 충칭 귀위안항(果园港) 복합운송 감독센터 설립 예정, 물류허브 구축

샤징(谢静) 충칭 량장신구(两江新区)자유무역시범구(‘자무구’로 약칭) 주임은 현재 귀위안항이 복합운송 업무를 이미 시작하였다. 동시에 화물은 입항 전용철도를 통해 ‘일대일로’ 및 창장황금수로와 연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귀위안항은 정책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복합운송 감독센터 설립 계획을 신청하였다.

귀위안항은 창장상류 철도·도로 복합운송의 종합적인 항만으로 ‘일대일로’와 창장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주요 지점이다. 또한 충칭자무구의 발전방안에 따라서 향후 귀위안항은 주로 창장상류 물류 허브항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량장신구는 충칭자무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혁신하는 동시에 자무구 총제계획에서 귀위안항 복합운송 및 통상구 감독 등 관련 11개 정책 조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귀위안항에서는 통상구 발전방안을 이미 충칭시정부에 보고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국무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귀위안항 발전에 따라 관련 보세물류 부대기능도 구축해야 하고, B형 보세물류센터³⁾ 및 수입과일, 식량 및 육류 식품 등 지정 통상구 기능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충칭은 귀위안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기반으로 대중화물 거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정 통상구 기능을 확장하여 식량, 광석 및 자동차 등 대중화물의 국제 구매, 결제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업무범위를 물류에서 거래 및 금융서비스로 확장할 것이다.

현재 귀위안항은 상하이(上海)~귀위안(果园)~난충(南充), 귀위안~판즈화(攀枝花), 귀위안~시창(西昌), 귀위안~시안(西安), 귀위안~칭하이(青海), 귀위안~산시(陕西) 등의 10여 개 수수환적 및 수로·철도 복합운송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촨(四川),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산시(陕西) 및 광시(广西) 등 주변 지역의 대외물류 환적항이 되었다.

올해 안에, 란저우(兰州)~충칭(重庆) 고속철도를 개통 후, 수송 거리는 1,466km에서 820km까지 단축하고, 운영 시간은 22시간에서 6.5시간까지 줄이고, 운임은 30%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량장신구 귀위안항은 국제복합운송 종합물류허브 건설을 위해 올해 말에 귀위안항의 서·북구역에서 수로·철도 복합운송 통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귀위안항과 란저우~충칭 고속철도 간의 끊긴 데 없는 연결을 형성할 것이다.

<자료 : 重庆市交通委员会, 2017. 5. 3.>

6 광동 난사(南沙)자무구 국제선박등록센터 정식 설립

2017년 4월 26일, 광동 난사(南沙)자무구 국제선박등록센터가 광저우에서 정식 설립되었다. 동시에 ‘광동난사’ 국제선박등록 선적항도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자무구 난사지역은 본격적으로 중국자무구에서 제8번째 국제선박등록 선적항이 되었다.

광동자무구 설립 2년간 광동해사 관련 기관은 자무구의 발전추세에 따라 광저우국제항운중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자무구에서 국제선박 등록제도 및 선상비자 취소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3) B형 보세물류센터 : 해관 비준하에 여러 개 중국기업이 입주하여 보세창고물류업무를 진행하는 장소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2016년 12월 13일, 중국교통운수부는 자무구에서 국제선박 외자투자 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광둥난사’국제선박등록 선적항의 설립에 따라 난사자무구는 정식으로 국제선박등록 업무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난사자무구에서 선박유자, 선박보험 및 선박수리 등 항운서비스 산업사슬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자무구를 통해 난사항의 경쟁력 및 허브항 역할을 더욱 제고시킨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난사항 국제정기선 항로는 12개를 개척하였으며, 화물 및 컨테이너물동량은 각각 3.04억 톤 및 1,262만 TEU로 전년대비 7.5%, 8.1%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난사국제크루즈모항도 조속히 건설하고 있고, 여객 수는 전국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中国新闻网, 2017. 5. 2>

7 <광시(广西) 해양경제 지속가능 발전 '13·5' 계획> 발표

최근, 광시좡족자치구 정부 관공청(办公厅)은 <광시 해양경제 지속가능 발전 '13·5'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양경제와 생태건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2020년까지 광시성 해양경제 총액이 2천억 위안을 넘어, 연해지역을 광시성 개혁심화의 선행구역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계획은 광시성 해양경제 발전의 기존문제를 분석했다. 총량과 산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생산총액은 전국 해양생산 총액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 생산총액의 6.5% 정도이다. 해양경제의 전체적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주혁신 능력도 빈약하다. 또한, 해양분야의 인재가 부족하고, 해역자원에 아직 집약적, 절약적 및 생태적 이용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계획>은 광시성의 해양경제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2020년까지 해양경제 능력이 현저히 강화되어 전 지역 경제에 대한 지속성장의 엔진이 된다. 둘째, 산업구조와 공간구조 배치는 최적화시키고, 현대 해양산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셋째, 해양과학기술 능력이 계속 강화되어 해양생태문명 건설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넷째, 해양법제(法制)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체제를 계속 보완하여 종합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다섯째, 베이부완(北部湾)을 중심으로 서남과 중남 지역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블루경제의 최고성장, 베이부완 지역의 국제해운센터, 전국 해양생태문명 종합시범구, 고수준의 베이부완 국제휴가관광구 및 해양경제 협력 개방구역으로 건설되어, 강한 해양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은 광시성에서 '1벨트, 3역, 5구, 多편(一带三域五区多片)'의 새로운 해양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1벨트는 베이부완 해양종합산업 벨트이며, 3역은 베이하이(北海), 팡청강(防城港) 및 친저우(钦州)의 3대 해양경제 성장역을 가리킨다. 5구는 현대어업, 현대항만, 연해관광, 연해 해양서비스업, 해양신흥산업의 5개 클러스터를 가리킨다. 다편(多片)은 난닝(南宁), 류저우(柳州), 우저우(梧州)와 위린(玉林)을 접점(节点)으로 해양경제의 복지범위를 확대하고, 육지경제와 해양경제의 통합을 실현시킨다.

그 가운데 광시성은 현대 해양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로 현대 해양어업, 해양교통운수업, 해양선박제조·정비업, 해양공정건축업, 해양염업과 염화공업 등의 해양 전통산업의 발전을 향상시킨다. 해양생물의약품, 해양플랜트제조업, 해수종합이용업, 해양재생가능에너지산업 등의 해양신흥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할 것이다. 연해관광, 해양문화와 전시서비스산업, 해양금융, 해양정보, 해양과학연구·교육, 해양응급,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해양체육 등의 현대 해양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공업, 열병합발전(CHP), 첨단제조 등 임해공업의 발전에 진력한다.

이와 동시에 <계획> 중에 광시성의 해양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생태보호와 건설,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통제, 그리고 해안지대와 도서생태의 보호와 과학적 이용에 관한 강화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해양생태경제와 순환경제 추진 및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은 해양생태 레드라인, 베이부완 해양환경보호 공공 플랫폼 및 베이부완 연안해역의 육·해 통합 생태환경보호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는 '일대일로' 건설과 전면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경제의 융합을 추진한다. 광시성의 지역적 우위조건에 근거하여, 아세안을 향해 개방협력의 새로운 중추로 구축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와의 해양인문 교류를 심화시키고 중국-아세안 해상협력 종합실험구를 함께 구축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7. 4. 28>

8

류펑(刘峰) 대양협회 관공실 주인,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에 대한 해석

5월 3일,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법>(이하 <심해법>으로 약칭) 반포 1주년 기념으로 브리핑을 개최했으며,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은 <심해법>을 위한 조치이다. 류펑(刘峰) 중국대양광산자원 연구개발협회 관공실(办公室) 주인은 <관리방법>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대한 신청, 수리, 심사, 비준과 감독·관리를 규범화시키고, 심해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시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심해법>과 <허가증법>에 의거하여 본 <관리방법>을 제정했다.

<심해법>에 의해, 국가는 심해저 자원 탐사·허가 제도를 실행한다. 중국의 공민, 법인이나 기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심사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본 <관리방법>에서 제시된 심해저 구역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관할범위 외의 해상(海床)과 해저 및 그 저층토(底土)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 의해 심해저 자원 탐사·허가를 획득한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라이선시(Licensee)로 통칭)는 법에 따라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증으로 규정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국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국제해저관리국에게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가해양국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의 명칭, 국적, 거주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기본정보, 탐사·개발 예정 구역의 위치, 면적, 광산종류 등의 설명자료, 신청자가 국제해저관리국이 규정한 재무와 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자료, 또한, 자금증명 및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의 복사본, 프로젝트 투자 보고, 용자방안이나 관련 재정자원과 자금보증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탐사·개발과 관련된 경험, 기술장비, 지식, 기술자격 등에 대한 설명, 탐사·개발의 작업계획,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의 환경영향 평가서, 해양환경 파손에 대한 응급 대응방안 및 국가해양국이 규정한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해양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심사내용은 탐사·개발 신청이 국가이익에 부합여부, 신청자의 신용상황, 신청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자유무역시범구 : 2014~2016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추후 개혁방향
- ▶ 동향 & 뉴스

자의 자금상황, 기술조건, 장비조건 등, 탐사·개발의 작업계획,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의 환경영향 보고서와 해양환경 파손에 대한 응급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해저관리국이 규정한 각종 자원의 탐사·개발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심사해야 하며, 국가해양국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가 제기한 허가신청에 대해 국가해양국은 신청일부터 60일 근무일 안에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허가신청을 비준할 경우, 신청자에게 허가증과 관련문서를 발급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며, 신청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行政复议)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가 있다고 고지한다.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에 대한 건전한 감독·검사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며,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라이선시(Licensee)가 국가해양국에게 탐사·개발 활동의 상황, 환경 모니터링 상황과 연간 투자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라이선시는 국제해저관리국에게 연간보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연간보고를 국가해양국에게도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해양국은 라이선시가 탐사·개발에 사용된 선박, 시설, 설비 및 항해일지, 기록, 데이터 등에 대해 검사한다. 라이선시는 국가해양국의 감독·검사를 협조해야 한다. 국가해양국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라이선시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라이선시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안 되며 다른 이익도 도모하면 안 된다.

라이선시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탐사·개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할 때 약정을 어길 경우 및 동의 없이 탐사·개발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탐사·개발 계약에 대해 중대한 변경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해양국은 법에 따라 그의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증을 취소하고, 관련문서를 철회한다.

대양협회 관공실은 <심해법>의 해당 제도 시스템에 대해 설계를 진행했다.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자료 관리방법>,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샘플 관리방법> 및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환경조사와 평가 관리방법> 등의 세 가지 문서는 올해 국가해양국이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7. 5. 4>